



발행처 :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 전화 02-795-1591 | 팩스 02-795-1592 | <http://www.kieme.or.kr>

## 의평원 활동

## 2010년 의과대학 인증평가 경과 및 결과

2010년 인증평가 대학은 가천, 강원, 건국, 건양, 경북, 계명, 고신, 관동, 단국, 대구가톨릭, 동국, 연세원주, 제주, 조선, 차, 충남, 충북 17개 대학으로 서면·현지방문평가를 실시하였다.

2010년 의학 교육 인증단 평정위원회(12/23) 결정에 따라 17개 대학은 2010년도 인증 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하였다.

2010년 의과대학 인증평가 경과 및 방문평가단 구성은 아래와 같다.

2010년 인증평가 결과

일정	세부 내용
2010. 1. 11	2010년도 인증평가 대상대학 선정 통보
2010. 2. 10	2010년도 의과대학 인증평가 대상대학 설명회 및 평가기준 및 자체평가 연구지침 발송
2010. 2. 10 ~ 8. 31	대학별 자체평가 및 보고서 작성
2010. 6. 22	2010년 인증평가위원 선정 완료 및 통보
2010. 7. 16	제1차 방문평가단 워크숍
2010. 8. 31	대학별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접수마감
2010. 9. 10	제2차 방문평가단 워크숍
2010. 9 ~ 10	평가대학별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서면평가 및 평가대학별 현지방문평가 실시 (17개 대학)
2010. 10 ~ 12	최종평가보고서 작성(집중작업 포함) 및 검토
2010. 12. 23	판정위원회 개최 및 판정
2010. 12. 29	대학별 평가 결과 통보
2011. 1. 23~	인증평가 결과 외부공시
2011. 2. 15	2010년 인증서 전달식 및 기자간담회 개최

## 2010년 평가 대상 대학 및 방문평가단 구성 – 9개 평가단 62명 평가위원

평가단	단장		평가대학	평가일정	평가단	단장		평가대학	평가일정
	성명	소속				성명	소속		
1	정명현	연세	이비인후과	건국	10/11(월)~13(수)	6	김영창	차	10/20(수)~22(금)
				고신	10/20(수)~22(금)			강원	11/3(수)~5(금)
2	이윤성	서울	법의학	관동	11/9(화)~11(목)	7	안덕선	경북	10/4(월)~6(수)
3	최종상	고려	병리학	조선	10/13(수)~15(금)			연세원주	10/18(월)~20(수)
				충남	11/3(수)~5(금)	8	윤희상	건양	10/4(월)~6(수)
4	이수곤	연세	내과	제주	10/4(월)~6(수)			동국	10/11(월)~13(수)
				단국	10/25(월)~27(수)	9	임기영	충북	9/29(수)~10/1(금)
5	채종일	서울	기생충학	계명	10/7(목)~9(토)				대구가톨릭
				가천	10/11(월)~13(수)				10/19(화)~21(목)

## 제2차 인증평가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의학교육인증단은(단장임기영) 지난 9월 13일 '제1차 의과대학 인증평가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이어 '제2차 의과대학 인증평가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1월 15일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이정애 인증기준위원장의 개정 인증평가기준(안)에 대한 발표와 김영창 인증제도위원장의 인증규정 개정(안) 발표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규정 및 기준 개정(안)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었으며, 충분히 검토하여 Post 2주기 평가인증 규정 및 기준의 발표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업무협력 협약식 개최



본원은 11월 15일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본원 안덕선 원장과 대교협 성태제 사무총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간의 업무협력 협약서(MOU) 체결을 진행하고, 두 기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평가인증 관련 지식 및 정보 교환 직원 교류를 통한 전문성 개발, 공동연구 수행 등에 동의하였다.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10년 심포지엄 개최

본원은 2010년 11월 30일 Post 2주기 평가인증을 주제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10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금번 심포지엄에서 인증기준위원회, 인증제도위원회, 인증관리위원회의 Post 2주기 평가인증을 대비한 평가인증 규정 및 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발표와 WHO/WFME, AMEWPB 인증지침에 대한 안덕선 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특히, Australian Medical Council의 의과대학인증평가위원장인 Dr. Michael John Field의



'Medical School Accreditation in Australia. Issues involved in assessing major changes and new programs'에 대한 초청강연을 진행하여 호주 및 선진국의 평가인증 방법 및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2012년부터 적용될 의학교육 평가인증 규정 및 기준 개정본을 11월 30일자로 공표하고 관련기관 배포하였으며, 전문은 본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 2010년 의학교육인증단 판정위원회 개최

의학교육인증단은 2010년 17개 평가대학에 대한 서면·현지 방문평가를 완료하고 인증평가규정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피평가대학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지난 12월 23일 힐튼호텔에서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판정위원회에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대표, 보건복지부 대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2010년 의과대학 평가인증 경과보고와 대학별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판정결과에 따라 평가대학에 인증결과를 안내하고, 지난 1월 24일 2010년 인증평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적으로 안내하였다.



## 제3-3차 실행위원회 개최

본원 제3-3차 실행위원회가 2011년 1월 24일(월) 서울역 티원에서 개최되었다. 본 실행위원회에서는 9~12월까지의 회무 및 재무사항을 보고하고, 2010년 결산(안)과 2011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검토, 개정 평가인증 규정 및 기준을 의결하였으며, 간접연구비 관리 규정 등을 심의하였다.

## 2010년 정기감사 개최

정관제19조에 의거 ‘2010년도 회무 및 회계에 관한 정기 감사’가 2011년 1월 25일(화)에 프라자호텔에서 실시되었다. 지근(서울의대 명예교수), 정명현(연세의대 교수)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하여사무국 인력·공간 부족, 인증평가 분담금 인상, 업무수당 인상, 정관 검토,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확충 방안 등을 지적하였으며, 제출된 감사보고서는 제11차 정기 이사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 제11차 이사회 개최 예정

제11차 정기 이사회가 2011년 2월 15일 오전 7시, 소피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이사회에서는 2010년 회무사항을 보고하고 2010년 결산(안), 201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 2010년 인증서 전달식 및 기자간담회 개최 예정

의학교육인증단은 2011년 2월 15일(화) 11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2010년 인증서 전달식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부는 2010년 의과대학 인증평가 결과 기자간담회로 10시 30분부터 시작하며, 이어 11시부터 임기영 인증단장의 2010년 인증평가 경과발표가 진행되고, 17개 대학에 대한 인증서 전달식이 진행된다.

## 2010년 의과대학 인증평가 결과 기자간담회 및 인증서 전달식

사회 : 김명곤 간사

<제 1부>

- 10:30~10:40 2010년 의과대학 인증평가 경과 및 결과 발표  
10:40~11:00 기자단 질의 응답

임기영 단장

<제 2부>

- 11:00~11:05 인사말  
11:05~11:10 제2주기 4차년도(2010년) 인증평가 경과 발표  
11:10~11:20 인증서(폐) 전달식  
11:20~11:30 기념촬영

이윤성 이사장  
안덕선 원장  
임기영 단장

##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의무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예정

한국보건의료인교육인증평가기구협의회(회장 : 안덕선, 고려의대)는 의료관련 평가인증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4개 단체가 모여 2008년 4월에 설립되었다. 현재 본원 안덕선 원장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회장은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본 협의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주관으로 현행 의료인 교육의 실태와 평가인증의 기능을 살펴보고, 보건의료분야 인증 의무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를 2011년 2월 15일(화) 14:00, 국회 현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평가인증의 교육적, 사회적 기능에 대한 발제와 의료기관 인증제, 우리나라 미인증 의료인 교육 실태 등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

- ◊ 일시 : 2011년 2월 15일 14:00 ~ 17:00
- ◊ 장소 : 국회 현정기념관 2층 대강당
- ◊ 주관 : 민주당 정책위원회, 한국의료인교육인증평가기구협의회
- ◊ 주최 :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교육과학위)
- ◊ 세부일정 및 프로그램

<1부>

- 14:00~14:20 • 등록  
14:20~14:30 • 개회사 : 박은수 의원, 김상희 의원  
• 축사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당 전병현 정책위원장

□ 사회 : 한창호 교수 (동국대 한의학과)

안덕선 교수 (고려대 의대)

14:30~15:00 [발제] 평가인증의 교육적 · 사회적 기능 및 외국사례

이정애 교수 (전남대 의대)

15:00~15:20 [사례 발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제도

임기영 교수 (아주대 의대)

15:20~15:50 [사례 발표] 우리나라 미인증 의료인 교육의 실태

15:50~16:00 Coffee Break

□ 좌장 : 이윤성 교수 (서울대 의대)

16:00~17:00 [종합 토론]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 방안

- 이창준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지원과)

- 방연호 과장 (교과부 인재정책분석과)

- 신자섭 교수 (서울대 의대)

- 허윤정 전문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 조정진 교수 (한림대 의대 / 대한병원협회)

## 졸업후교육 관련 합동워크숍 개최 예정

본원은 졸업후교육 관련 연구결과 보고 및 논의를 위해 2011년 2월 24일~26일까지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졸업후교육 관련 합동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평생교육발전위원회, 졸업후교육발전위원회, 연구개발위원회의 위원이며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 일시 : 2011년 2월 24(목) – 26일(토)
- ◇ 장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 ◇ 목적 : 1) 졸업후교육 및 평생교육 위원회 간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2) 위원회별 집중 작업
- ◇ 일정(안)

### 2월 24일(목)

- |             |                  |
|-------------|------------------|
| 18:00–18:30 | 워크숍 개최지 도착 및 체크인 |
| 18:30–19:30 | 저녁 식사            |
| 19:30–21:30 | 일정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

### 2월 25일(금)

- |             |                                    |
|-------------|------------------------------------|
| –09:00      | 아침식사                               |
| 09:00–12:00 | ACGME, CanMED 2005, RESPECT 100 발표 |
| 12:00–14:00 | 점심식사                               |
| 14:00–17:30 | 위원회 집중작업(1) 수행                     |
| 17:30–19:30 | 저녁식사                               |
| 19:30–21:30 | 합동회의 및 토론                          |

### 2월 26일(토)

- |             |                  |
|-------------|------------------|
| –09:00      | 아침식사             |
| 09:00–12:00 | 위원회 집중작업(2) 및 정리 |
| 12:00–      | 점심식사 이후 해산       |

## 교육 관련 소식

### 교과부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신청 공고

본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신청 공고(6/30)에 따라 11월 29일 의학교육 프로그램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를 교과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교과부는 12월 17일 토즈(toz)에서 프로그램 인증소위원회 및 인정 신청기관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청기관의 내용 발표 후 위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1월 19일 오후 1시 반부터 교과부의 인정기관 신청 관련 현장심사가 개최되어 본원 원장과 인증소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 후 본원의 소명요구사항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날 심사에는 교과부 담



당자, 프로그램 인증소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여 12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고, 본원은 이사장, 원장, 인증단장 및 인증단 전문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12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인정기관 지정신청관련 진행 현황은 아래와 같다.

### ※ 인정기관 지정신청 관련 진행 현황

일자	내용	비고
10.06.30	교과부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신청 공고	
10.11.29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신청서, 입증자료, 별책 제출
10.12.17	프로그램 인증소위원회 및 인정 신청기관간 간담회	
10.12.22	교과부, 인정기관신청 관련 자료 요청	
10.12.28	인정기관 신청 관련 자료요청 답변서 제출	
11.01.19	인정기관 신청 관련 현장심사실시	교과부 인증소위원회 위원 12인,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위원 12인 참석
11.01.31	교과부, 보완자료 제출 요구	

## 의평원 연구활동

### 2010년 교과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본원은 교과부의 '의학분야 평가인증 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수준의 평가기준 개발 및 평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 (사업비: 6,500만원, 사업기간: 2010.4.1~2010.12.31) 연구를 종료하고, 교과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세부 과제목록은 다음과 같다.

과제	결과 목록
Post-2주기 인증평가기준의 글로벌 선도 사업	Post 2주기 인증평가기준의 글로벌 선도 사업 보고서
호주인증평가참관 및 운영현황 벤치마킹	호주 인증평가참관 및 운영현황 벤치마킹에 대한 보고서
인증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성 개발 사업	평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시행 결과보고서
의과대학 인증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사업	의과대학 인증평가의 메타평가 기준개발 연구

###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협약 체결

본원은 의료정책연구소와 11월 16일 정책연구과제 연구 협약을 체결하였다. 연구과제명은 인증평가 개선방안 연구이며, 연구기간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2011년 11월 16일이다. 이와 함께 일반과제로 The Global Role of the Doctor in Health Care의 Country report 연구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연구기간은 정책과제 기간과 동일하다.

# 기 고

## 의과대학 인정평가사업의 태동에 얹힌 이야기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유승 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추진하여 만든 “의과대학 인정평가” 사업을 모태로 한다. 필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학술이사로서 의교협의 설립을 추진하여 초대 간사를 역임하였고, 의평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짧은 지면을 통해 의과대학 인정평가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설립에 얹힌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의과대학이 전국에 8개(서울에 5개 그리고 대구, 광주, 부산에 각 1개) 있었는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11개가 신설되었고, 제5공화국(1981~87) 때 9개, 제6공화국(1988~92) 때 4개, 그리고 문민정부(1993~98) 때 9개가 신설되었다. 의 협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신설을 꾸준하게 반대하여 왔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도 의과대학이 계속 신설되었다. 의협은 앞으로 의사인력이 적정공급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 반대하였다. 그러나 국민과 언론은 “3시간 대기에 3분 진료”라고 지적하면서 의료계의 의과대학 신설 반대를 일축하였다.

의과대학 신설 움직임이 대형병원의 설립주체이었음은 아 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대형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 학병원이 되는 것이 재무측면에서 유리하며 우수한 의료 인 력을 확보하기도 용이한 것이 비탕에 깔려 있었다. 한편 정부 나 언론에서는 의사들이 자기네 위상을 지키기 위한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반박하였다. 의과대학 신설의 부당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관련 공무원들과 간담회도 갖는 등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의과대학은 꾸준히 신설되었다.

신설 의과대학은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유성희 의협회장 때 학술이사(1994~97)인 필 자가 신설의대 반대 담당 주무이사였다. 이에 주무이사로서 지금까지 주장하여 온 의사인력의 양적인 이유 뿐 아니라 의 학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같이 강조함으로써 의과대학 신설을 반대하고 아울러 기존 의과대학을 포함하여 의 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정책을 제안하여 채택 수용되었다. 그리고 의협 단독으로 의과대학 신설을 반대하지 말고,

병원협회, 의학회, 의과대학학장협의회, 의학교육학회 등 의 학교육과 관련되는 조직들을 규합하여 한목소리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가 필요함을 강조하여 유성희 회장을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의교협이 설립(1996. 4. 25)되었고, 의협 학술이사 가 간사(당연직)를 맡도록 하였다. 의과대학 신설을 반대하는 건의서 등도 의교협 명의로 하였다. 의교협에서는 의과대학 신설을 포함한 의학교육 및 수련과 관련되는 업무에 관하여 스스로 토의하였다. 더러 조직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경 우가 있었으나, 대체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의교협의 운영비는 의협에서 지원하였다.

한편, 교육부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서 “의과대학 설립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준칙주의 도입 방안”(김일순, 이순형, 유승 흄 등, 1997)을 제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의교협에서 의과대학 인정평가사업을 하도록 추진하였는데, 의교협 회장을 위 시하여 대부분의 위원들이 원칙에는 찬동하되, 민간사업으로 하게 되면 강제력이 없으므로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의협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였다. 이무상 교수가 1997년 봄에 의협 학술이사(의교협 제2대 간사)가 되어 필자와 호흡을 맞추면서 속도가 붙었다.

그 무렵에 의과대학 신설 저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는데, 의학교육 관련단체 대표자들이 청와대 교육담당 수석비서관을 방문(96.10.11)하여 인정평가제도 도입을 건의하였고, 의협 회장 초청으로 교육부장관과 면담을 하였던 바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 도입 추진을 약속

96.11.1.)하였다. 이로서 인정평가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교육부가 97학년도 3개의대(성균관, 을지, 중문) 신설과 가천의대 설립 예고(96.10.24)하면서 (1) 의학교육 질향상을 위한 기초의학 발전방안 수립 (2) 의과대학 설립준칙주의 마련 (3) 의과대학 교육평가제도 도입 추진 등 3개 항을 부대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1997년에는 “의과대학 설립 준칙주의” 도입과 “의과대학 평가제도”를 시행 할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의교 협은 의과대학 신임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97.12.10)에서 논의한 바에 의거해서 의교협 회의를 개최(97.12.20)하여 신임평가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었다. 연구실무위원회(맹광호 위원장, 이무상 간사)가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의교협에 인정평가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99년에 8개교를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하였다. 국내에서 1996년에 처음 생긴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에 교육학을 전공한 양은배 교수가 뒷바라지를 하는 덕택에 인정평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토의에 토의를 거쳐서 인정평가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비용을 아껴 쓰고 남은 것은 1999년 봄에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의학원에 적지하였다가 나중에 인수 받아 썼다. 2001년 초부터 의학교육발전연구위원회(김건상 위원장)를 구성하여 이듬해 의평원을 단독 설립 또는 한국의학원에 부설 등 세 가지 안을 제시(2002.8)하였다. 이 중에서 처음에는 한국의학원의 부설로 하였다가 독립하는 안을 수용하는 추세였다.

의평원 설립(안)을 2002년 연말에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하였더니 불기하다는 연락이 왔다. 이에 2003년 1월 4일에 설립추진위원 중 5명(이종욱, 김세종, 김건상, 유승흠, 이무상)이 의료정책국장을 방문하였다. 열 가지가 넘게 나열된 의교협 업무(안)에 대하여 이런 것은 정부가 특수법인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담당(보건자원과)과장의 의견이었다. 나열된 업무 중 인정평가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 열거된 점

에 대하여는 이미 필자가 연구위원장에게 지적한 바 있었다. 한편 이삼년에 걸쳐 의교협에서 논의한 의학교육평가 업무를 간파한 간호협회는 간호교육평가원 설립을 준비하였고, 김화중장관이 부임하자 2003년에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 해 5월 의학신보사 이웅사장과 의약사 평론가 6명이 김화중장관과 오찬 모임을 가졌는데, 필자가 장관에게 의학교육 향상을 위한 평가원 설립 승인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더니 장관은 당연히 인가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리하여 의평원 설립총회(2003.11.21.)를 가졌고, 법인 설립이 허가(2004.2.27.)되었다. 의평원 설립준비위원회들이 의교협의 기관 추천으로 이사진에 포함되었으나, 한국의학원이 제외되었기에 필자는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다.

의평원이 재단법인 인가를 받았으나, 의협 등의 재정지원으로는 충분할 수가 없었다. 이에 이종욱 원장은 의과대학 정보시스템(KOMSIS) 구축 및 운영비 지원을 의학원에 요청하였다. 재단법인간 지원은 세법 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필자는 이런 시스템을 의학원에 설치 운영하고, 의평원에서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양해각서(2005.4.6)를 체결하고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였다. 그런데,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왕규창 회장)에서 정보와 자료는 학장 협의회 관련 사항이라고 의의를 제기하였다. 그래서 학장협을 포함한 3개 기관이 운영하도록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2006.10.31)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 후 의평원의 인정평가 관련 인쇄비 등도 의학원에서 상당 부분 지원하였다.

우연일지 아니면 인정평가를 비롯한 의과대학의 질적 평가를 포함하여 그런지는 몰라도 가천의대 설립 인가 후 지금 까지 14년 동안 의대 신설을 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아직까지 인가된 사항이 없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앞으로 의평원의 인정평가 사업의 수준이 더욱 향상되어 그 노하우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파함으로써 의학교육계에서의 인정평가사업을 국제화하는 바탕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본 재단의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http://www.kimhee.or.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소식 제15호

· 발행처 :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 발행인 : 안덕선 · 편집 : 대외협력위원회 · 인쇄 : (재)한국의학원